

불교IT문화원과 함께하는 'IT와 불교'

'IT기술' 불교 방향 설정 · 위상 제고에 기여

#불교와 IT의 상관관계

불교와 IT(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의 상관관계는 그다지 밀접하거나 친근해 보이지 않습니다. 불교가 가진 정신적, 종교적인 문화의 특성이 IT라는 디지털개념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며, IT라는 문명의 산출물이 풍기는 기계적 정확성, 도시적, 비인간적인 이미지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좀더 깊이 성찰해보면 불교의 과학적인 사상과 합리적인 정신세계를 IT의 사회성과 프로토타입의 논리체계를 비교한다면 더없이 많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될뿐만 아니라 상호 유기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불교나 IT가 가지는 특성중에 공(空)사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IT에도 가상적인 공간속에서 많은 정보를 구현하고 있으나 실상 실체(사)가 없다는 불교적인 철학사상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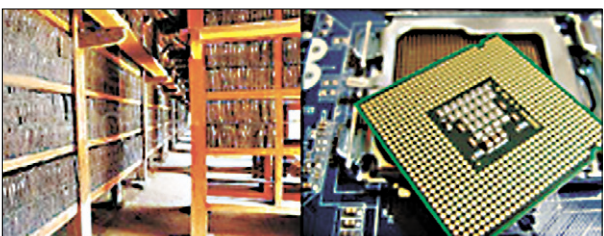
IT의 모든 근간은 자각이 없는 무기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은 여러가지로 다양한 유기체의 기능을 구현합니다. 네트워크, 상용 프로그램, 컴퓨터, 다양한 프로토타입 기술, 상용 TOOL,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등은 감각도 없으면서 자아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집합체는 명확한 목적의식을 지니고 역할(action)을 수행하므로써 유기체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인간은 5온(五蘊)에 의지하지만 IT기술은 CPU, Network, OS, Program, Sensor, 출력장치 등이 어색하기는 하지만 인간의 오온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역으로 분석해보면 인간이 고귀한 인격체로서 존재하지만 결국 지주화(지주)로 사라지듯이, IT역시 가상공간에서 마치 실재인 양 정보를 제공하고 상거래를 하며 음악을 들려주는 등 운영되나 해체하면 사용할 수 없는 부품으로 전락합니다. 이런 관계를 연관해 판단한다면 역시 일지는 모르나 IT는 친인간적이며 불교적입니다.

부처님 시대에는 정보(법륜)를 알기하거나 구전으로 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대의 정보는 문자화는 물론 디지털화 하여 언제 어디서든 손에 내밀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하기 까지 합니다. 전파속도는 더 말할 가치가 없습니다. 만약 아직도 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옛날처럼 쌀을 머리에 이고 4-5시간 산길을 걸어 법회에 참석해야 한다면 누가 불자로 남아 수행을 하겠습니까.

불교의 IT화는 불교의 포교와 수행은 물론 불사, 정책, 교육, 문화 등 어느 한 곳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이 시대가 던져준 친근하고도, 값싼 사용자 큰 도움이 되는 도구입니다.

#불교IT의 추진과 의식의 전환



21세기 들어 세계 각국 대장경들의 디지털 전산화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디지털은 21세기 모든 사회분야에서 이미 회화가 됐습니다. 이러한 사회 흐름에 힘입어 세계 각국에서는 대장경의 디지털 전산화 작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불교의 전산화 하면 우선 불전(대장경)의 전산화를 떠올리지만 더욱 다양하고 폭넓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장경의 전산화만으로 불자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컴맹이라 외치면서 전원을 켤 수도 없음을 당연시 하는 분위기에

서는 아무리 훌륭한 전산화도 일부 불교 전문가의 전문물로 전락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법당 부처님 앞에서 좌선을 해야만 여법하고 특경 큰스님에게 검증 받아야만 한다는 논리는 많은 불자와 수행자들의 기회를 잃게 합니다. 부처님 법은 사방 어느 곳에도 이미 오래전에 존재하므로 어떠한 형식으로도 자유롭게 공유되어야 하며 공간과 그 환경의 수준을 떠나, 다만 자유롭게 익히고 수행할 수 있는데 이로우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버스 속에서 PDA로 법문을 읽고 열불을 따라하며 자신의 방에서 묵묵히 읽고 사이버공간에서 예불을 모시는 문화도 여법하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부처님의 공부방식으로 틀리지 않으며 시대적인 수행에 부응한다고 보여 집니다. 전통도 중요하지만 부처님 시대처럼 탁발을 한다거나 맨발로 수행을 한다거나 할 수는 없는 시대입니다. 불교계의 행정소임을 맞는 스님들의 의식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회두라고 외친 불교IT 추진은 21세기에 큰 성과 없이 지나고 있습니다. IT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으나, 이미 농경사회-산업사회-정보화사회를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불교의 행정부터 포교와 수행까지 구제도의 방식에 의존해 있던 대중을 이끌어갈 조직으로서의 여러가지 불편함과 문제점이 자연발생한다고 보겠습니다.

#IT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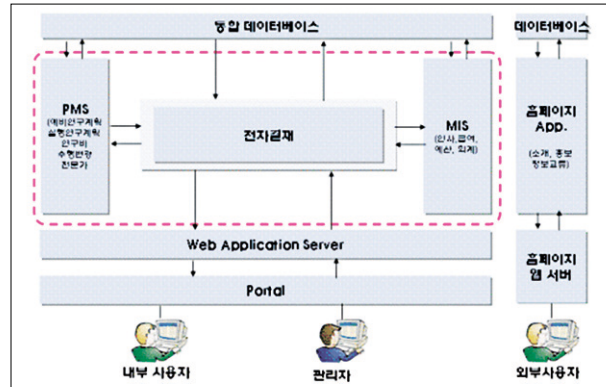
부처님 법은 사방 어느 곳에도 존재하므로 어떠한 형식으로도 자유롭게 익히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IT를 인간의 오온과 행등에 비교하면 빨리 이해할 수 있는것은 그 메카니즘이 인간에게 친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불교의 모든 면에 적용된다고 보겠습니다.

△포교 : 사찰, 단체, 모인등의 홈페이지구축 △블로그, 사이버 수행공간 활성화 △인터넷 방송, 신문 등 언론매체 △수행 : 경전 전문 등 자료의 공유와 △행정관리 : 통합전산망 구축을 통한 정확성, 효율성 구현 △문화재유지관리 : 산재해 있는 불교문화재 등록,관리를 통한 세밀한 관리 △경전연구 : DB를 통한 경전의 재검증 및 체계화, 대중화 △문화재신방재관리 : 전통불교문화재의 방재를 통한 안전한 관리 △교육관리 : 불교계의 교육체계의 개혁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 구현 △인력관리 : 승단, 불자, 조직, 단체의 DB를 통한 다양한 실리추구.

각각의 부분적 발전으로는 제 역할을 할수 없습니다. 위에 기술한 부분들이 인프라로 구축되어 유기적인 역할을 할 때 극대화된 힘을 발휘합니다.일부 계층에서는 아직도 불교의 수행특성을 내재의 전통적인 방법만을 답습하고 그것을 통한 여법성을 강조합니다. 불교

의 공부가 그러하듯 IT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것으로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실행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전산화를 통해 상품의 질적 향상과 높은 보안시스템을 갖추수 있다.

'IT나눔' 으로 새롭게 여는 세상

불교IT가 발전된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필요성을 늘 감안해야 합니다. 스님, 불자, 일반인 등 불교관련 사용자의 컴퓨터 보유 및 사용 능력을 감안해야 하며, 컴퓨터 교육을 통한 정보의 공유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지침을 줘야합니다.

따라서 불교IT문화원 같은 공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불교계엔 많이 필요합니다. 컴퓨터를 보급해주고 컴퓨터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정보 이용법을 알려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IT나눔'은 단순히 PC매입과 교육에만 국한 되지 않고 대상자의 복지문제와 교육 문제까지 신경을 써주는 새로운 개념의 사회복지 기업입니다.

기존의 생명나눔,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는 있지만 배고픈 60년대에는 밥이 그리웠으나 현대 캠퍼스에게는 IT나눔이 배고픈 만큼 절실합니다. IT시대에 IT에 접근하지 못하는 불자, 스님, 불우이웃에게 IT 하드웨어나 사용법을 제공할 뿐 아니라 불교에 접근시키고 인터넷 서비스제공 및 인터넷교육 무료지원 등 IT사회에서 동떨어져 있는 이웃에게 IT나눔은 새로운 개념의 복지사업이며 시대에 맞춰 실천하는 보현행원입니다. 주변의 호응과 동참을 기대해 봅니다.

#불교계에 전산화 노력과 문제점

한마디로 발명에 떨어진 불을 끄는 미흡한 수준입니다. 전문인력 확보와 조직력, 장기계획, 재정확보 등 구체적인 노력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승려 전산교육은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중무행정의 능력을 높이고 승려들의 정보활용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미래불교를 위하여 고수되어야 합니다.

전자불전, 고려대장경 전산화가 진행됐지만 그것이 대중화되고 End User(최종사용자)의 필요성과 부합되어서는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교계의 노력은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자원과 데이터의 신뢰를 위한 연구 그리고 대중성 등을 모두 아우르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필리불전, 산스크리트불전, 티베트불전, 한문불전 등이 전산화되었으나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입력 작업 자체가 연구활동 촉진 등 귀중한 가치이지만 효율성 및 대중화를 위한 노력도 배가 되어야하며 지속적인 보안 등이 필요합니다. 정확히 확인하고 검증하는 절차가 확립되지 않아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되며 언어의 장벽, 기초학술의 필요, 원전을 이해해야 하는 문제 등으로 볼 때 국가 차원의 지원과 교계의 확고한 의지와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구나 대중을 위한 불교콘텐츠 개발과 사찰전산화 지원정책 등 많은 속제는 신심을 가지고 끝없이 노력하는 노력을 요구합니다.

#불교계 전산화 상품의 질적 향상과 보안시스템

불교계는 일반기업과 같이 우수한 전산전문인력을 보유하거나 추진기획과 장기 플랜(plan)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불교계의 전산시장은 활성화 되지 않았다. 업체의 전문성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업체의 상도의상 불교계를 이끌어주고 유도해야 하는 입장에 서있는 업계전산업체의 과감한 상품개발을 위한 투자와 보시행이 어렵습니다. 좀더 유연성을 가진 프로그램개발과 가격 책정, 불교계의 현실을 감안한 표준화 앞서가는 상품제시 등이 요구됩니다.

열악한 상황에서는 보안에는 더욱 신경을 돌릴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일반기업에서는 당연히 하는 보안정책 등이 비용 등의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불교 전산에는 수많은 신도의 인적 데이터뿐 아니라 중요정보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해커의 침입자를 위한 방화벽 구축, 백업을 통한 안전성확보 등이 시급하지만 재정 부족 및 인식부족 등으로 인하여 아직 대책이 미비하며 빠른 개선 등 조치가 필요합니다.

#IT와 불교미래



불교계의 IT활성화로 급진적인 전파의 효과를 제공, 여러가지 문제점을 보완해 줄수 있을것이다.

역사를 돌아볼 때 종교(불교)는 시대성, 사회적, 정치적의 연관관계 등이 발전에 많이 관여를 해온 것을 간과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교 발전을 위해서는 올바른 시대 흐름과 정책 등에 함께 부응할 뿐 아니라 철저히 활용할 때 비로소 문제점을 지적하고 평가할 대처능력과 자격이 생긴다고 확신합니다.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불교와 IT의 융합은 오월동주(吳越同舟)가 아니라 부처님 법을 전달하기 위한 적합한 방편으로서 이 시대가 제공하는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불교의 미래가 어둡다고들 이야기 합니다. 내가 바뀌어야 불교도 바뀐다. 불교의 발전이 누구 한 개인의 힘으로 진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간과 시간을 넘어서고 신세대를 아우르며 급진적인 전파의 효과를 제공하므로써 그동안 하지 못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보완해 주리라 봅니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방편이 감히 불교의 IT화라고 주장합니다.

우기는 곧 기회라고 합니다. 변화와 개혁은 다른 이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개혁되고 변화해야 합니다. IT기술은 이 시대에 불교의 방향 설정과 위상 제고에 도움이 되는 부처님의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삼장법사의 어려운 구도 행로에 사용하던 손오공의 요술봉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대중이 기도의 원력을 한데 모아 새로운 장을 여는데 힘을 합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불교IT문화원 www.itbuddha.co.kr (02)739-9777
일담 스님(불교IT문화원 부원장)

| | | |
|---|--|--|
| <h2>불자 정보</h2> <p>760호 TEL 02) 2004-8215(直) 732-1522 FAX 02) 737-0696</p> | <h3>사찰 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포항 도심속 아담한 사찰 ● 법당 30평(단청) ● 요사채 3, 방 3 ● 산신각, 독성, 용왕단 ● 가액: 4억 ● 주차장 확보 <p>영주불사 010-9798-1091</p> | <h3>사찰 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충북 제천시 ● 대지 80평 ● 건물: 방4, 주방2, 거실1, 욕실1 ● 법당 15평 ● 가액: 1억 8천만원 (유자 5천만원 가능함) ● 사장상 급 양도, 주인직접 <p>011-792-8969</p> |
| <h3>사찰 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논산시 연산면 ● 법당 18평 ● 요사채 2동 ● 가액: 1억 3천만원 <p>016-742-2122</p> | <h3>포교원 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부산 연산2동 ● 평수 약 25평 ● 방 2, 공양간, 집기일체 ● 즉시법회가능 ● 가액: 몽땅 5,500만원 <p>010-4007-0057</p> | <h3>암자 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매당리 ● 요사채 1, 작은법당 1 ● 가액: 6,000만원 <p>011-723-6640</p> |
| <h3>포교원 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송파구 전철역에서 3~4분거리 ● 4층중 2층, 실평수 약 50평 ● 시설: 방3, 부엌1, 화장실 ● 아마타석자반동불, 지장보살2자반 동불, 관세음보살2자반, 후불신신명화와 합 60평 ● 모든시설완비, 집기일체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 월 100만원 ● 시설비 3천만원(합중가능), 스님 사정상 급해 양도 <p>010-5336-8875</p> | <h3>포교원(급)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경남 사천시 ● 면적 65평 ● 방 4개, 다용도실, 최고시설 ● 삼존불, 냉난방 안벽시설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최저가 인도 <p>018-622-9865</p> | <h3>포교원(급)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서울 화곡역1분거리 변화가 ● 버스정류장앞 시장입구 ● 3층건물 중 3층 옥상사용 ● 법당20평 ● 후불명화, 백의관음불, 후불산신명화 ● 현 상업중, 시설완비, 즉시 법회가능 ● 보증금 1000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2300만원 ● 확장불사관제로 급 임대함 <p>010-3552-3351</p> |

사찰 대출 안내

사찰대출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족도2동 새마을금고**입니다. 사찰은 주로 공시 시가가 낮고 일반인의 눈으로 단청의 가치를 판단하기 힘들기에 사찰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어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저희 새마을금고는 오랜 경험과 사찰의 가치를 잘 알고 있기에 **민족할 만한 결과**를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 **새마을금고**는 서민 금융기관으로 지역사회개발과 회원복지에 목적을 두는 **비영리 금융기관**이라 부처님의 중생 구제에 가장 일맥상통하는 금융기관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양도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현재 높은 이자로 사채나 대출을 쓰시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와 의논해 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입니다.

▶ 1억원 대출시 월이자 약 60만원 ◀
출장비, 소개수수료, 대출짜기가 일체 없습니다.

- 대출지역: 전국
- 대출형태: 담보대출
- 대출금액: 5천만 ~ 5억
- 대출금리: 연 7.2%~8.2%
- 대출기간: 5년(연장가능)

● 담당직통: 010-9842-4200
● 상무: 이강욱
● 과장: 김상민 016-9314-2522

족도 2동 새마을금고 본점전경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혜택다이어트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풍뎠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축적되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